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27>

조주 스님이 상당히 잠시 말이 없다가 "대중은 다 모였는가?" 하고 물었다. 대중이 대답했다.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 더 오면 설법하겠다." 한 승이 말했다. "기다려도 올 사람이 없으니 곧 화상께서 설법이 좋을 듯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참으로 사람 얻기 힘들구나."

上堂良久 大眾總來也 未對云 總來也 師云 更待一人來即說話 僧云 候無人來即說似和尚 師云 大難得人

대중이 다 모였는데도 한 사람을 더 기다린다고 했던 조주 스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문맥 상으로 살펴보면, 당시 그렇게 모인 대중 말고 뭔가 특별한 사람을 기다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선사가 상당히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시 대중 중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채고 즉시 일어나서 그동안 공부한 견해를 한 번 밝혀줘야 한다. 조주 스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눈 밝은 남자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대중 중에는 아무도 조주 스님의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듯하다. 오히려 이제 사람이 다 모였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설법 하심이 좋을 것 같았으니 조주 스님의 의도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은 사람 얻기가 참 힘들다고 토로한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얻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이 모인 차에 말했다. "밝다고 하나 밝지 않고 어둡다고 해도 밝아지려고 할 때이다. 그대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양쪽에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것이로군." 학승이 말했다. "만일 중간에 있다면 양쪽에 있는 것이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중은 나의 이곳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러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구(三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가령 빠져나온다 해도 역시 삼구(三句) 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사람 얻기 힘들구나

야. 자, 자네 어떠한가?" 학승이 말했다. "저는 삼구(三句)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빨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師因參次云 明又未明 道昏欲曉 你在阿那頭 僧云 不在兩頭 師云 與麼即在中間也 云 若在中間即在兩頭 師云 這僧多少時在 老僧者裡 作與麼語話 不出得 三句裡 然直饒出得也再三句裡 你作麼生 僧云 某甲使得三句師云 何不與麼道

삼구(三句)는 이쪽과 저쪽,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삼구(三句)이다. 즉 밝다고 말한다면 일구(一句)에 떨어진 것이고, 어둡다고 말한다면 이구(二句)에 떨어진 것이다. 만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삼구(三句)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 않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학인은 다만

온갖 것을 다 겪고 살아가도

마음은 고요해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삼구를 사용할 뿐이라고 했더니 조주 스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학인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부처에 집착하면 일구에 떨어진 것이고, 중생계에 집착해도 이구에 떨어진 것이니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부처와 중생을 다 떠났다고 해도 역시 삼구에 떨어진 것이니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진리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는 부처와 중생계에 다 집착하지 않을뿐더러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찾지도 않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부처임을 한 번 깨닫고 즉시 부처의 길을 가되 내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삼구(三句)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답은 오랜만에 조주 스님이 학인을 인정하는 문답으로 이뤄져있다. 학인의 말이 옳다면 인정해주는 것도 선지식이 할 일 중에 하나이다. 선이룩이 끝없이 부정으로만 채워진다면 이 선법(禪法)은 오해받기 쉽고 그런 법은 사라지기 쉽다.

학승이 물었다.

"시방을 관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금강선(金剛禪)을 떠나는 것이야."

問 如何是通方 師云 離却金剛禪

방(方)은 각 방면을 뜻한다. 4방보다 세분할 때는 8방이라고 하고, 8방보다 세분해 말할 때는 8방과 하방까지 합해 10방이라고 말하는데, 편리한 발음을 위해 시방(十方)이라고 부른다. 시방은 보통 우주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우주를 관통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사바세계 한 국토에 있는 것을 다 관통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데, 시방을 관통했다면 가히 부처님과 같이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면 그리되기 힘들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우주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즉, 금강선(金剛禪)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방을 관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금강선은 요지부동의 절대 선정을 얻은 것을 말한다. 만약 누가 한 번 앉으면 수 시간, 혹은 수일을 망상 없이 한 가지에 마음이 고정돼 있다면 그는 정(定)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설사 죽을 때까지 앉아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망상도 없이 선정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을 금강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지부동의 선정 상태는 모든 수행자들이 동경하는 경지이다. 생도 죽음도, 분노도, 미움도 없이 오로지 고요한 마음 하나만 가득해 마음이 마치 고요한 허공과 같은 일체를 벗어난 절대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경지에 들어가도 이 절대 경지를 즐기거나 있다면 이 또한 병(病)이 들은 사람이다. 사람은 살아있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온갖 것을 겪고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해서 무엇을 보고 느껴도 고요해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과 돌과 나무와 같은 마음이 뭘을 즐겨워하고 가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 돌과 죽은 나무는 천지에 가득하다. 그것을 부처라고 떠받들면 되지, 무엇 때문에 죽을 고생해 금강선을 뉘는단 말인가. 금강선에 들어간 자는 금강선을 버려야 한다. 불교에 들어간 자는 불교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사똥팔팔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를 마음대로 쓸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8 종보본 <육조단경(六祖壇經)>

선정·지혜의 일체를 세우다

보리달마 시대로부터 육조혜능 시대에 이르는 시기를 소위 초기선종시대 구분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인도의 붓다로부터 발생하고 형성된 선법이 중국에 전래됨으로써 중국 선종의 토대를 구축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선경(禪經)이 전래되고 번역됐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선법에 관련된 저술 및 어록 등이 출현하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초기선종 시대의 최후로서 이후에 전개되는 중국선종의 토착화를 구축한 인물이 육조혜능(638-713)이다.

혜능은 이전 동산법문으로 불리던 홍인의 십대 제자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선법을 일상의 생활 속에 끌어들이었으며, 수행과 깨침으로 대변되는 선정과 지혜의 일체(一體)를 내세우고, 정도·삼학·사홍서원·삼귀의·삼신 등에 대해 자성법문으로 전개해 소위 중국적인 선법의 토대를 완성했다. 이와 같은 혜능의 선법은 <육조단경>에 잘 나타나 있다. 혜능에게는 이 밖에 <금강경>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육조구결(六祖口訣)>도 전해진다. 초기선종 시대에 증시되었던 <반야경>·<유마경>·<열반경>·<법화경>·<화엄경> 등에서도 <단경>의 사상적인 바탕은 <반야경>·<열반경>·<유마경> 등이었다.

<육조단경>은 <단경>, <법보단경>, <육조대사법보단경>, <남종대승교회상대승마하반아바라밀경육조혜능대사소주대법사비법단경>, <남종대승교회상대승단경법일권>, <남종대승교회상대승마하반아바라밀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 <단경>은 중국 선종의 제6조 대강혜능(638-713)의 어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보리달마를 초조로 해 제6조 대강혜능으로 계승되는 중국 선종의 계보는 <단경>을 거쳐 지거(智炬)의 <보림전(寶林傳)>에 의해 확정됐다. 이후 <조당집> 및 <경덕전등록>으로 계승됐다.

이로써 <단경>은 소위 중국적인 선법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곧 선종에서 증시했던 정법안장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전통설의 확립과 수증관의 입장에 대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림전>의 형성 직전에 이미 <단경>을 통해 전통설로는 과거의 7불을 비롯해 인도의 28조와 중국의 6조에 이르는 33조사의 계보가 형성되고, 돈오연성의 선법이 강조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경>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선·정·정·혜·화·선·참·회·삼신, 삼학, 사홍서원, 정도 등에 대해 자성법문으로 귀일시켰던 점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조사선의 사상적인 바탕을 제공했다. 특히 좌선에 대한 입장은 기존의 인도에서의 활용된 수행적인 측면을 넘어서 깨침 및 그 실천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

<단경>은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달마어록>과 더불어 초기선종의 선어록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초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사 선법의 형성에 초석이 됐는데 이 점은 이후 <신화어록>을 비롯한 본격적인 어록의 출발이었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단경>은 그에 걸맞게 훌륭한 개판을 통해 어떤 선전보다도 많은 판본을 출현시켰다. 그와 같은 수많은 <단경>의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종보본 <단경>이다.

그런데 종보가 발문에서 "내(宗實)가 처음 출가해 이 <단경>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다른 세 가지 분을 보니 각기 달랐다. 서로 간에 어긋나는 곳도 있고 판본도 질서도 있었으나 이로써 그 판본을 얻어서 교정을 했다. 잘못된 곳은 바로잡고 생략된 곳은 자세하게 보완했으며 다시 입실한 제자들의 청익기연(請益機緣) 부분을 증보했다. 이로써 바라는 것은 참학자들이 조계의 종지를 남김없이 터득하는 것뿐이다"고 말한 것처럼 기존의 판본에다 종보 자신이 나름대로 <단경>에 손을 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혜능의 법어가 어디까지이고 후손에 의해 보입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단경>의 역사만큼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부분에 첨삭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심지어 종보본 <단경>의 경우도 후대에 전승되면서 다시 유포본과 명판대장경본으로 유통됐고, 명판대장경본에도 다시 남장본과 북장본으로 유통됐다. 곧 같은 종보본이면서도 명판대장경에 입장돼 있는 것에는 명교계승이 찬술한 <육조대사법보단경찬(六祖大師法寶壇經贊)>이 첨가돼 있고, 부록으로는 유종원(柳宗元)이 찬술한 <사시대강선사비(賜諡大監禪師碑)> 및 유우석(劉禹錫)이 찬술한 <대강선사비(大監禪師碑)> 등이 첨가돼 있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남방선사의 혜능 대사 등신불. (현대불교지료)

이 연 공 고

2006년 음 9월 15일 입실건담

법은상자중 다음과 같이
이연함을 공고합니다.

滿巖堂 松亭 丈室

秋光堂 普城 丈室

智空堂 天明 丈室

成雲堂 智恩 丈室

2010년 7월 23일

法恩師 蓮虛堂 蓮華

종무법인禪農敎團

(법원등기 제 000006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第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며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 입 종 비 : 없음
-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지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습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알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발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향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알뜰